

## 38선(한반도 휴전선) 장벽을 넘어, 북한디자인을 연구하는 방법

최 희 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분단 이후 남한의 '북한 연구'는 자유로운 인적, 물적 왕래뿐만 아니라 정보와 학술 교류가 허용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한민국 국적의 연구자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법적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특수자료'로 분류되는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다.

물질문화와 관련된 북한디자인 연구도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직접 방문, 사물 관찰, 사용자 면담, 객관적 통계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자는 금서(禁書)에 가까운 제한된 문헌 자료에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 연구 결과물의 인쇄와 출판 과정에서 북한 시각물 활용의 저작권 문제가 더 높은 장벽으로 앞을 막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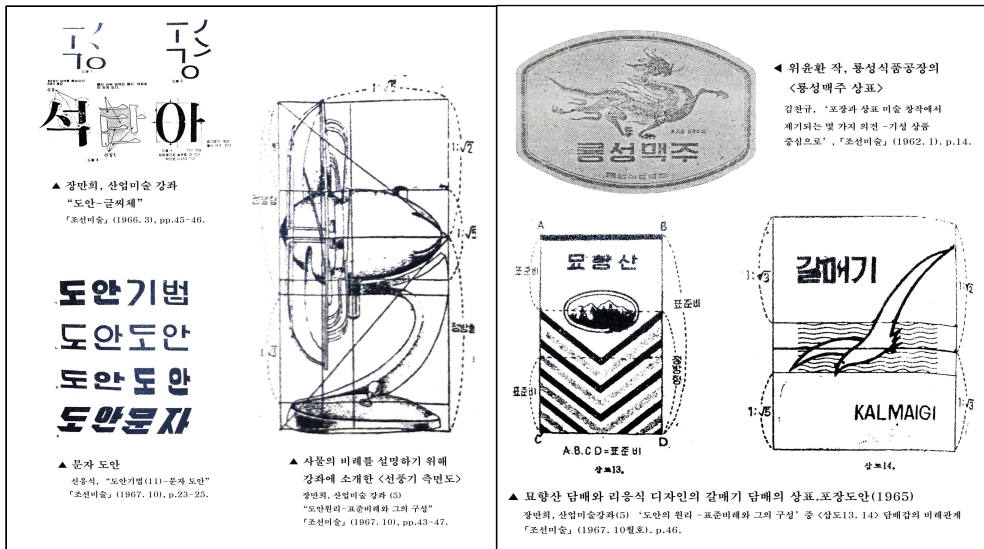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연구방법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2020년 『북한에도 디자인이 있을까?』라는 제목의 산업미술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해방 이후 국가상징 도안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영역을 넓혀나간 북한산업미술가들의 70여 년(1945-2018)의 활동 흔적을 추적한 책이다. 내용은 남북 분단 이후 2018까지 북한 국가전시회와 주요 디자인 작품들을 소개하고 해석을 덧붙여 구성하였다.



포스터, 상표, 서체, 생활용품, 기계, 의상, 건축,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을 다룬 북한산업미술 책 표지.  
 최희선(Hee Sun Choi), 『북한에도 디자인이 있을까? - 북한산업미술 70년 2(1945-1999, 2000-2018),  
*Industrial Art as Design in North Korea*, Seoul: Damdi(2020).

이 책은 미술, 경제, 문화, 관광 관련 북한 출처 원전들과 대외용 선전물들에 소개된 북한디자인 관련 자료들을 사진으로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과 더불어 여러 문헌에서 창작연도 혹은 발표년도, 디자이너, 디자이너의 소속 대학 및 창작소, 주제, 조형적 특성, 국가전람회 수상과 같은 특이 사항들을 정리한 약 3천여 디자인 작품들의 정량적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를 『조선미술사』<sup>1)</sup> 등 문헌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집필했다. 이 자료들 중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천리마 트랙터 기계공업설계와 가전 및 가구 공업디자인, 의상디자인, 방직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서체 디자인의 산업미술 사례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연대별로 정리된 2권의 책에는 북한디자인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작품 1천여 점을 선정되어 있다. 이 상하권은 화보집처럼 디자인을 그림으로 소개하는 목적보다는, ‘북한 사회에서 디자인은 무엇인가’라는 개괄적 설명과 함께 과거 70년 동안 북한산업미술의 시대별 특성을 독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선행연구들과 관련 자료들을 함께 첨부해놓았다.



6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창작된 글자체도안, 공업도안, 상표 및 포장도안들  
 『북한에도 디자인이 있을까? - 북한산업미술 70년(1945-1999)』, 서울: 담디(2020), p.233, p.287.

나는 이 책을 ‘디자인사 서적’으로 감히 부르지 못한다. 그는 이유는 당연히 앞서 설명한 그대로 남한에서 시각자료 수집의 범위와 양적 한계가 있었고, 북한체제 특성상 1차 자료들의 객관성 및 사실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인 저자 본인마저도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연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었다.

1) 김순영 · 리철 · 리임철 · 박현종 · 조인규 · 함인복 · 홍의정. 『조선미술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일반적으로 한국의 디자인역사 연구자들은 문헌 조사, 사물 관찰, 구술 조사 등 인류학 및 민속지학의 물질문화 연구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취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에서 자료 접근과 보안 때문에 북한산업미술 연구는 연감, 미술서적, 전문지 등을 통한 문헌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다. 북한미술은 1988년 정부의 7.7선언으로 북한자료의 일반 공개 조치가 취해진 후 남한에서 연구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9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북한문화예술’ 중 한 분야로 미술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북한미술 연구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 이후 21세기 전환기 남북한 관계 향상에 따라 일부 북한미술 작품들이 남측에 전시되면서 북한미술 관련 서적들도 조금씩 등장하였다. 남측에서 출판된 이구열의 『북한미술 50년』(2001)은 90년대까지 활동한 대표적 산업미술가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지금도 나에게는 연구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남한 연구자가 북한을 장기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로 관찰·분석·기록하며 사회 현상과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남한의 미술사학자이자 제3대 문화재청 청장을 역임한 유흥준이 과거 ‘북한미술의 사적(史的) 전개와 그 이해’<sup>2)</sup>(1990)에서 “북한미술 평가를 유보하는 까닭은 북한미술의 진정한 이해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일밖에 없다”고 언급한 점에 본인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 책은 그의 말처럼 북한디자인 비평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단면을 ‘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바라볼 수는 관점을 제시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창작된 북한산업미술 사례들

2) 김문환 편, 『북한의 예술』, 북한의 인식 총서, 서울:을유문화사, 1990.

『북한에도 디자인이 있을까? - 북한산업미술 70년』, 서울: 담디(2020), vol. 1: p.28, vol. 2: p.57.

북측에서 생산된 주류, 담배 등 제품들과 회화, 선전화 등 미술작품, 우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가 간간히 있지만, 구입 과정의 적법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자료 공개 동의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연구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북자 구술조사도 북한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3만이 넘는 탈북인들(2020년 말 기준 33,752명, 통일부 자료) 중 산업미술을 전공한 사람을 아직 만나볼 수 없다는 점도 사시하는 바가 크다. 탈북 미술가도 드물지만, 이는 북측에서 과거 조선회를 기초로 한 민족적 화법이 미술계 전 분야에서 강조되면서<sup>3)</sup> 산업미술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북한미술계의 현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북한산업미술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2012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로 일명 ‘강성대국 원년’으로 북한이 선포한 중요한 해이다. 북한산업미술가동맹도 2012년 ‘산업미술 전성기’로 명명하며 신축한 디자인센터에서 대규모의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에 1천 7백여 점의 북한디자인 역사기록물들이 전시되었고, 4월 김정은이 디자인센터를 방문하며 산업미술이 대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전시회 관련 기사<sup>4)</sup>에 의하면 북한디자인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출발 되며, 그 시작점은 김정숙과 관련된 도안 작품들이라고 설명한다. 북한 근대미술사 출발점은 내부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어 사실 여부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육안으로 모든 자료들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북한산업미술은 분단 이후부터 남측과 다르게 진행되어 온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영국인 Nicholas Bonner가 북한에서 구입·소장한 우표, 포장지, 초대장 등의 그래픽 디자인 전시가 한국에서 열렸다. 디자인을 연구하는 본인에게는 외국인,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디자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찰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 전시를 통해 본인은 일부 시각에서는 ‘유행이 지난 사회주의풍’ 혹은 다소 ‘에스러운’ 미감으로 평가를 받는 그들의 독특한 디자인의 조형성 뒤에는 오랫동안 형성된 북한사회의 사상과 집단주의적인 디자인윤리, 경제와 문화정책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되었다.

북한산업미술은 남한과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예술, 경제, 정치 접점의 유형의 산물이다. 북한산업미술의 과거 자료들을 연구하다 보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단면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물질문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작은 상표에서도, 대형 기계에서도 시대별로 정치 역동성, 사회의식, 경제 상황, 과학기술, 문화 쟁점 등 다양한 측면들이 관찰된

3) 김일성의 1966년 10월 16일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 방문 이후 모든 북한미술 전 분야가 조선회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키는 교시가 내려지며, 민족주의 화법이 북한미술에 뿌리내리게 된다.

정종여,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의 미술을 조선회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키는 길에서- 1954년 10월, 조선회를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 15주년에 즈음하여”,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예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1969. 10), pp.21-27.

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노동신문, 2012. 4. 11, 1면).

다. 이 책을 통해 북한의 물질문화 연구에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되고 해외에 제3의 담론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